



고기잡이가 없었다면 인류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고대시대 식량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채집, 수렵, 고기잡이. 인류가 발전하면서 채집은 농경으로, 수렵은 목축으로 바뀌었다. 고기잡이만이 200만 년 넘게 식량 획득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기잡이를 이끌어 왔던 어부와 어부 사회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대체로 그들은 무명의 존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신들의 체험이나 견문을 전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고기잡이 역사의 상당부분이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것은 그때문이다.

인류사가 지금껏 놓친 바다와 바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갈무리한 책이 나왔다.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바다를 기반으로 식량을 조달했는지 책은 면밀하게 조망한다. 캘리포니아대학 고고학과 명예교수인 페이건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고학을 전파하는 데 주력해왔다. '기후, 문명의 지도를 바꾸다', '인류의 대항해', '위대한 공존' 등 그동안 펴냈던 책들은 인류 문명사를 조망한 기념비적인 저서들이다.

이번에 펴낸 '피싱' 또한 앞서의 연구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 저자는 문명 발달에 있어 수렵과 사냥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기잡이에 초점을 맞춘다. 정작 자신은 "낚시 실력은 내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어부들이 현대 세계가 세워지는 데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보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피싱

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정미나 옮김

여주고 싶어서"라고 출간 의미를 설명한다.

인문과 학계에서 쏟아지는 찬사는 이 책의 진가를 말해준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바다에 의존해 식량을

확보했는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고 평했고 소피아 페르디카리스 뉴욕시립대 대학원 교수는 "인류학, 고고학, 문명사, 역사, 생태학, 인문 등에 두루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꼭 읽어볼 만한 필독서"라고 추천한다.

저자는 고기잡이는 탐험, 항해, 교역 등 인간의 이동 생활을 견인했다고 본다. 고기잡이 가운데 배와 관련된 기술은 이러한 역동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물고기는 건조하거나 염장 처리하면 운반이 용이했고 영양분 또한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 더해지면서 선원이나 탐험가 등에게는 이상적인 식량원으로 여겨졌다.



고대시대부터 바다는 식량조달의 원천

고기잡이는 탐험·항해 등 인간의 이동생활 견인

인류사가 놓친 바다와 바다사람들의 이야기

책은 인간의 이동 생활과 문명사회를 이끈 고기잡이 역사를 크게 3부로 나눠 들여다본다.

1부에서는 인류가 연안과 강어귀, 호수, 강 등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던 이야기를 다룬다. 초기 인류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물고기를 움켜잡는 기회주의적 고기잡이를 했다. 고기잡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방식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됐다. 책에는 선사시대 어부들이 사용한 그물이나 창,

낚싯줄 같은 도구들이 소개돼 있다. 당시의 도구들은 근본적으로 오늘날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흥미를 자아낸다.

2부는 문명을 꽃피우고 세계를 이어준 어부와 고기잡이 이야기를 다룬다. 기원전 3100년경 지중해 동쪽(이집트)에서 세계 최초 도시가 출현했고 얼마 후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도 도시가 발전한다. 수메르, 이집트, 로마 등에서는 모든 도시마다 신전이나 공공건물을 지었는데 이들의 노

역자에게 줄 양식이 물고기로 충당됐다. 소금에 절인 생선은 지중해와 아시아 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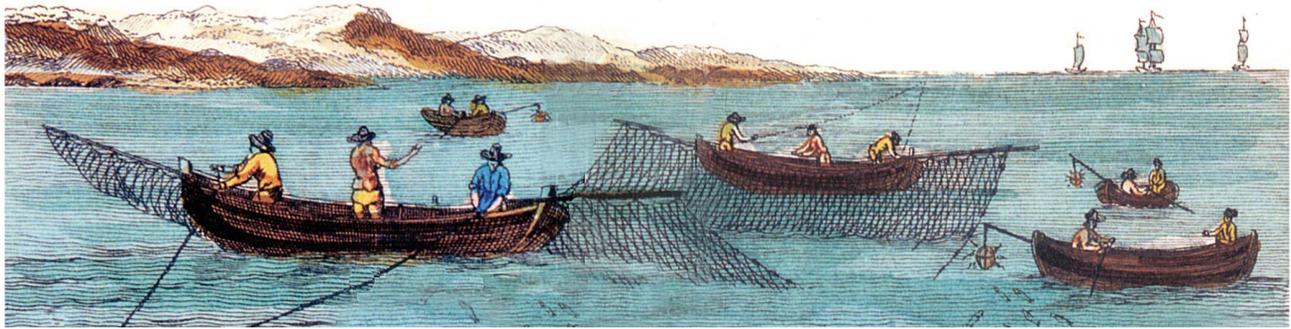
3부에서는 로마 제국의 붕괴와 중세은 난기라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와 맞물린 어부들의 활동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세기 무렵에는 물고기를 인근 시장에 내다 팔았고 300년 후에는 짐수레 수송망이 갖춰졌다. 노르망디에서 파리까지 생선을 운반하는 수송체계도 마련될 만큼 활기를 띠었다. 14세기에는 국제적 어업이 형성됐지만 안타깝게도 18세기 초에는 남획의 징조가 나타난다. 저인망 어선, 건착망 등 도구가 개발되면서 빚어진 부정적인 결과다.

저자는 "이전까지 아주 풍요로웠던 바다를 영영 사막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지속 가능한 어업은 월턴의 조용한 낚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편이 낫다. 안 그러면 바다에서 더 이상 물고기를 구경하지 못할 테니까"라고 경고한다. <출판사: 1만89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고기잡이는 오랫동안 인류의 식량 획득 수단이자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온 견인차였다.

<출판사 제공>

C.J. 체리 지음, 최용준 옮김 '다운빌로 스테이션'

"빈틈없고 생생하게 설정된 배경, 인간과 우주인에 대한 탁월한 성격 묘사, 이야기를 박진감 있게 진행시키는 능력...장대한 스케일로 집필된 지적인 우주 모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 SF소설이 발견됐다.



C.J. 체리의 '다운빌로 스테이션'은 두 차례 휴고상을 수상했으며 로커스 선정 세계 50대 SF 소설에 선정된 고전이다. 소설은 27권의 장편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유니언-동맹 소설'의 첫 권으로 우주개발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구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구 세력과 신세계(우주) 세력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을 그린다. 번역은 천문학과 우주 공학을 전공한 최용준 전문 번역가가 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면서 지어진 스테이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전개된다. 사업을 추진한 단체는 민간 기업 '지구 컴퍼니'이다. 스테이션 사이를 돌아다니며 물자를 교환하는 상선들이 생겼지만 스테이션과 상선들은 아직 지구에 의존적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지구에서 조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 기업인 컴퍼니는 스테이션들이 몇 광년 떨어져 있던 상관없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갈등이 진행된다.

이때 작물 재배가 가능한 '펠'이라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된다. 펠에 건설된 우주 정거장 '다운빌로 스테이션'. 펠이 더 이상 지구에 의존하지 않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펠에서 필요한 것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스테이션이든 지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장대한 스케일로 펼쳐지는 우주 탐험은 한여름의 더위를 말끔히 씻어준다. 작가가 제공하는 우주에 관한 지식과 이를 맛깔스럽게 풀어내는 전문 번역가의 솜씨가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열린책들·각 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존 조던 지음, 장진호 외 옮김 '로봇 수업'

2018년 미국의 로봇 공학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 '아틀라스, 바람 좀 쐬까?'는 달리기를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로봇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이 공개된 지 1주일 만에 조회수가 600만을 돌파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게시한 영상 32편의 조회수가 모두 2억을 웃돈다는 사실은 로봇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다.



존 조던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인 존 조던이 펴낸 '로봇 수업'은 로봇 공학에 주목한다. 미래 사회의 필수 지식으로서 로봇과 로봇 공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이다.

한국은 2030년 완전 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2018년 5월 현재 자율 주행 자동차 43대의 운행에 허가했다. 그렇다면 자율 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미래의 운전면허 제도는 현재의 것과 동일할 수 있을까? 로봇이 기능을 더해 갈 때마다 인간만을 행위의 주체로 보던 과거의 인간 중심주의적 판단과 규칙, 윤리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저자는 모두 9장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로봇 공학을 조망한다. 기존의 로봇에 대한 담론에서부터 로봇의 작동 원리, 전투용 로봇, 인간과의 상호 작용 등 다양한 관심사를 풀어낸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까?'라는 점이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공포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한편으로 로봇이 인간을 단순로운 업무에서 해방하고 인간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며 로봇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경제에 대한 로봇의 파급력은 행위자와 지표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할 때 비로소 예측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다. <사이언스 북스·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형준 지음 '히잡은 패션이다'

"외부인에게 히잡이 남성 중심적 교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해되는 반면,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에게 그것은 교리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영역이었다."



'히잡은 패션이다'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의 미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담았다.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인 저자 김형준은 현장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을 통해 히잡이 어떻게 패션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 연예인 사이에서 히잡이 유행하고 중상류층 여성에게 고가의 히잡이 인기를 끌면서 패션으로서의 히잡이 의복산업에서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히잡과 일상복의 결합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지하는 '히잡 가솔' 즉 '젊은 여성이 친구와 함께 외출할 때 착용하는 복장'이라는 의미의 신조어도 등장했다.

책은 '히잡, 무슬림 여성의 옷', '이슬람과 히잡', '인도네시아 히잡의 역사적 전개: 2000년대까지', '히잡, 패션으로서의 히잡', '질문, 히잡과 미적 표현의 자유', '현장에서 본 히잡, 의존성과 행위자 사이에서', '현장에서 본 히잡, 착용과 미착용의 다의성'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흥미로운 점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히잡 착용으로 인해 노출은 제한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머리털은 얼굴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관리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내적인 미를 특히 강조한다. 종교를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내적 차원을 종교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움을 거론할 때 내면의 미를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서해문집·1만6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각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벽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다른욕각형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